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9월 6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희망 >

사도행전2:38-41 / 새찬송가 543 (통일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1.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창12:1,2),(창26:2-4),(창28:13-15). 이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행2:39).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즉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방향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 앞에 있어서 뒤에 있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말입니다(창12:4). 결단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뒤를 밀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를 시간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가 현재를 덮쳐 다가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된 희망도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옵니다

현재 최악으로 인한 절망에 빠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희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뤄졌습니다. 그 미래가 절망에 빠진 현재의 나에게 닥쳐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미래가 현재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나에게 죄 사함과 의롭게 됨이, 치료와 문제해결과 축복이, 부활과 영생이 나에게 밀려들어 옵니다(살전1:10).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을 땅이 거역할 수 없고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현재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의 세력과 미래의 빛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사 9:1,2), (마4:12-16).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닥쳐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 4:17). 이 밀려오는 천국과 희망과 치료와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위해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약3:14,15)!

< 적용 & 실천 >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